

#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까만 밤, 별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야외에서 밤을 보낸 기억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한 하늘을 가르는 별똥별(유성, 流星)을 헤며 마음 속에 간직한 소원을 빌어 본 경험도 한 두 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 가고 있다. 비록 무관심과 공해에 병든 희미한 별빛이지만 이 밤 도시의 하늘에도 여전히 별은 빛나고 있다.

## 밤하늘의 신비를 한눈에

밤하늘의 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웬지 모를 감회에 젖게 된다. 밤이 주는 평온함이 우리를 더없이 순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별빛이 주는 느낌이 한없이 맑고 순수하기 때

문이다. 밤이 되면 아무리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낭만적인 감상을 느끼게 되며 어둠과 별빛이 내뿜는 신비한 힘 앞에 고개숙이게 된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아름다움의 절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다. 혹자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 작은 빛들로 이루어진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한번이라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낮 시간에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동이 별들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별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별의 이름과 별자리를 알아두는 것이 순서이

## 이태형

〈사무처장,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저자〉

신비롭고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91년에 재창단되어  
「별의 축제」 등 우주관측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목성축제에는 많은 회원 및 학생·일반인들이 모여 우주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 친구를 사귀는 데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먼저인 것과 같다.

별과 별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도인 성도(星圖)와 간단한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에는 경험자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일단 별과 별자리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좀더 깊은 우주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쌍안경(雙眼鏡)이나 망원경(望遠鏡)이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우주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사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사람이라면 우주의 신비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천문관측...학문적 기여

별과 별이 모여 만든 별들의 작은 집단 - 성단(星團), 별이 되다 말았거나 별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우주의 구름 - 성운(星雲),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작은 우주 - 은하(銀河), 하늘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의 집단이 우리 눈을 유혹한다.

각설하고 이제 본 학회를 소개하기로 하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추어 천문을 단지 취미로만 알고 있다. 그것도 무척 독특한 취미로 말이다. 그런 취미 모임에 무슨 학회가 있을까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자연과학과는 달리 천문학 분야에서는 아마추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정 천문 현상을 연구하여 그 원인과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 전문 천문학자들의 일이라면, 그러한 현상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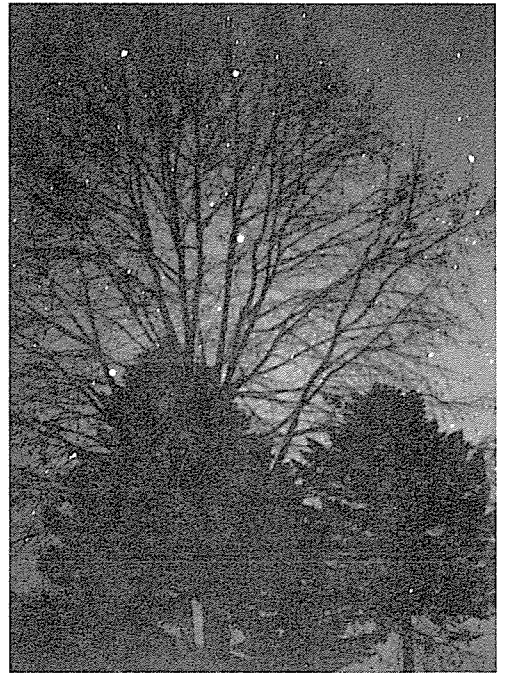
하여 천문학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의 일이다. 광활한 우주를 소수의 천문학자들이 대형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문학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천문학과 전문 천문학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아마추어 천문학은 낭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학문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72년 첫 천문가회 발족

우리나라에 '아마추어 천문'이라는 말이 자리잡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아마추어 천문이란 것이 시작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자코비니 유성우의 관측지로 지목되자 일본의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체면상' 급조된 단체가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KAAA, Korea Amateur Astronomers Association)」였다. 그러나 고대했던 자코비니 유성우가 소문난 잔치로 끝나게 되자 KAAA는 호지부지되어 버렸다.

그후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던 KAAA는 70년대 후반 계통광학연구소의 후원으로 차츰 활동 범위를 넓혀 가게 되었다. 연세대학교의 나일성교수, 조경철교수, 서울대학교의 유경로교수, 현정준교수 등의 협조로 아마추어 천문 보급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다. 1980년 KAAA는 이름을 한국아마추어천문협회(KAAA, Korea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전경은 사람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 준다.

Amateur Astronomical Association)로 바꾸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으나 초대회장이었던 박동현교수(덕성여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작고하면서 한동안 활동이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아마추어 천문학사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였다. 경제발전 속에 생활의 여유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장비나 인원면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동호회들의 결성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동호회의 활동만으로는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고, 정보의 획득이나 교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하기가 힘들었다.

### 91년 재창단 본격적 활동

따라서 KAAA는 전국적인 아마추어 천문학의 보급 및 교육, 그리고 정

보 전달 및 교류를 목적으로 1991년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KAAS, Korea Amateur Astronomical Society)로 재 창단하면서 현재 제3대 조경철박사를 회장으로 맞이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가고 있다.

본 학회는 아마추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1회의 소식지를 발간하며, 지역별로 월 1회 정도의 관측회를 실시한다. 아직 지방의 경우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회는 서울과 대전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회 회원들이 필요한 장비나 서적의 구입 정보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매년 4월 과학의 달에는 천문대, 우주소년단과 함께 전국에서 별의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별의 한마당 잔치를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매주 목요일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 천문강좌를 펼치고 있다.

◇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연혁

1991. 2. 23	창립 총회, 초대회장 박석재박사 선출
1991. 7	KBS TV와 공동 천체관측행사 개최
1991. 7~8	'여름철 은하여행' 천문 캠프 운영(우주리조트)
1992. 8	'제 1회 대기오염측정 전국 별자리 관측' 행사 주관 (동아일보, 과학동아 주최)
1992. 12. 26	제 2대 김한철회장 선출.
1993. 4. 29	'제 1회 별의 축제' 주관 (천문대 주최)
1993. 8	'제 2회 대기오염측정 전국 별자리 관측' 행사 주관
1993. 11	'제 1회 별의 한마당-토성축제' 주최(천문대 후원)
1994. 4	'제 2회 별의 축제' 주최(천문대, 우주소년단 공동주최)
7	94 목성 축제 주최(천문대 공동 주최)
12	제 3대 조경철회장 선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별을 좋아하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천체 관측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고, 공해로 사라진 밤하늘을 꿈과 낭만의 별하늘로 되살리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이 되고자 하려는 분은 사진 2

장과 간단한 입회원서(자기 소개서, 주소, 전화번호 명기)를 작성하여 본 학회로 보내고, 입회비 1만원과 연회비(고교생 이하 5천원, 대학생 1만원, 일반 2만원)를 온라인 입금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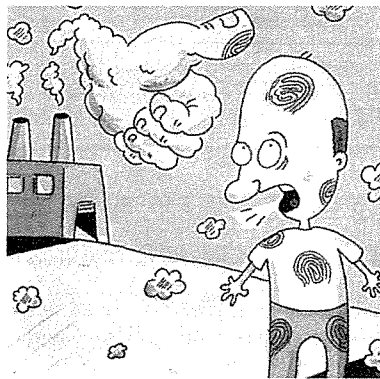
자, 눈과 마음을 저 넓은 우주로 돌려 새로운 세계를, 어린 시절 꿈꾸던 낭만과 신비의 세계를 찾아 보기 바란다. **ST**

굴뚝, 자동차의 배기 파이프, 그리고 산불 등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탄화수소의 구름이 대기중으로 내뿜어진다.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대기 오염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염 가스의 배출처를 찾아내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과학자들은 매연 물질의 미세구조를 검사하여 이론적으로는 각 입자의 역사와 발원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과학자들은 로스앤젤

탄화수소 대기오염원 추적



리스의 스모그에 포함된 액체 탄소 오염물질의 근원을 밝히는데 화학적

인 특성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MIT팀은 분해되는데 액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기본 탄소 입자를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오염 물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팀은 컴퓨터를 통한 오염 물질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탄소층의 간격과 같은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축적되면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특수한 탄소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팀을 이끄는 아델 사로팜박사는 말하고 있다.